소화기내과
Gastroenterology

위축성 위염

EMC 을지대학교의료원

위축성 위염이란?

위염은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또는 양념이 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, 폭음·폭식을 하였을 때, 헬리코박터 균에 의한 감염으로 위 점막에 발생한 염증입니다.

위축성 위염은 위에 생긴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로, 만성 위염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. 대부분 헬리코박터 균이 원인이 되어 위 표면의 점막이 얇아진 상태에 해당합니다.

이밖에도 맵고 짠 음식을 즐겨먹는 식습관이나 약물, 알코올, 커피나 담배 등의 요인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만나면 발병할 수 있습니다. 드물게는 만성신부전이나 동맥경화증, 철분 결핍성 빈혈과도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. 또 위암이나 위궤양 등 위수술 후에도 위축성 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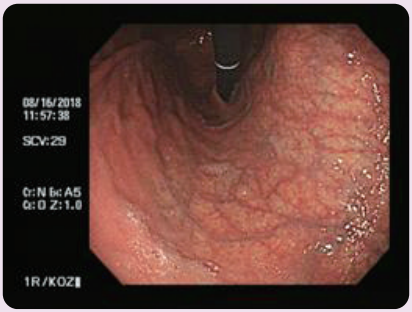
위축성 위염 자체는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발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. 또한 우연히 검진 목적의 내시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생기는 부위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위축성 위염은 위염 감염 기간이 오래되고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 25%가 위축성 위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. 40대 이후에 위염 증상을 보인다면,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
위축성 위염 위험성

위축성 위염이 악화되면 '장상피화생을 동반한 위축성 위염'으로 진행됩니다. 위 점막 세포가 아닌 소장 점막 형태의 세포로 대체되는 것입니다. 즉, 위 점막이 장세포처럼 변해 소화효소를 분비하지 못하게 됩니다.

장상피화생를 동반한 위축성 위염은 위내시경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색소내시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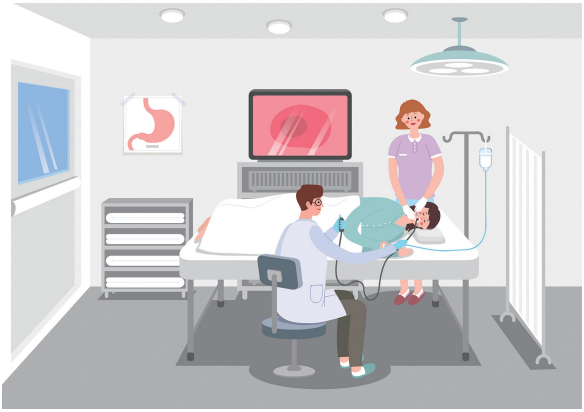


장상피화생을 동반한 위축성 위염은 조직의 변화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. 위축성 위염의 0.5~1%는 위암으로 발전하고 장상피화생이 조직소견으로 나오면 일반인에 비해 위암의 위험이 20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치료 및 예방법

위축성 위염 및 화생성 위염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다만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경우 위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내시경을 할 때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해서 균이 발견되면 제균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

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위내시경을 하게 되어 있지만 위축성 위염 및 화생성 위염이 있을 경우 1년에 한 번씩 검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



올바른 식습관

신선한 과일과 야채

고농도 비타민C

달걀

흰살생선

우유 및 유제품

지방을 제거한 육류 등 단백질

상한 음식

젓갈과 같이 소금에 절인 음식

질산염이 발색제로 쓰이는
햄, 소시지, 베이컨 등 가공육

튀김 요리

1899-0001

의정부	평일 08:00~17:00
대전/노원/강남	평일 08:30~18:00 토요일 08:30~12:30

www.emc.ac.kr

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엔 '을지'가 있습니다

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
노원을지대학교병원 강남을지대학교병원